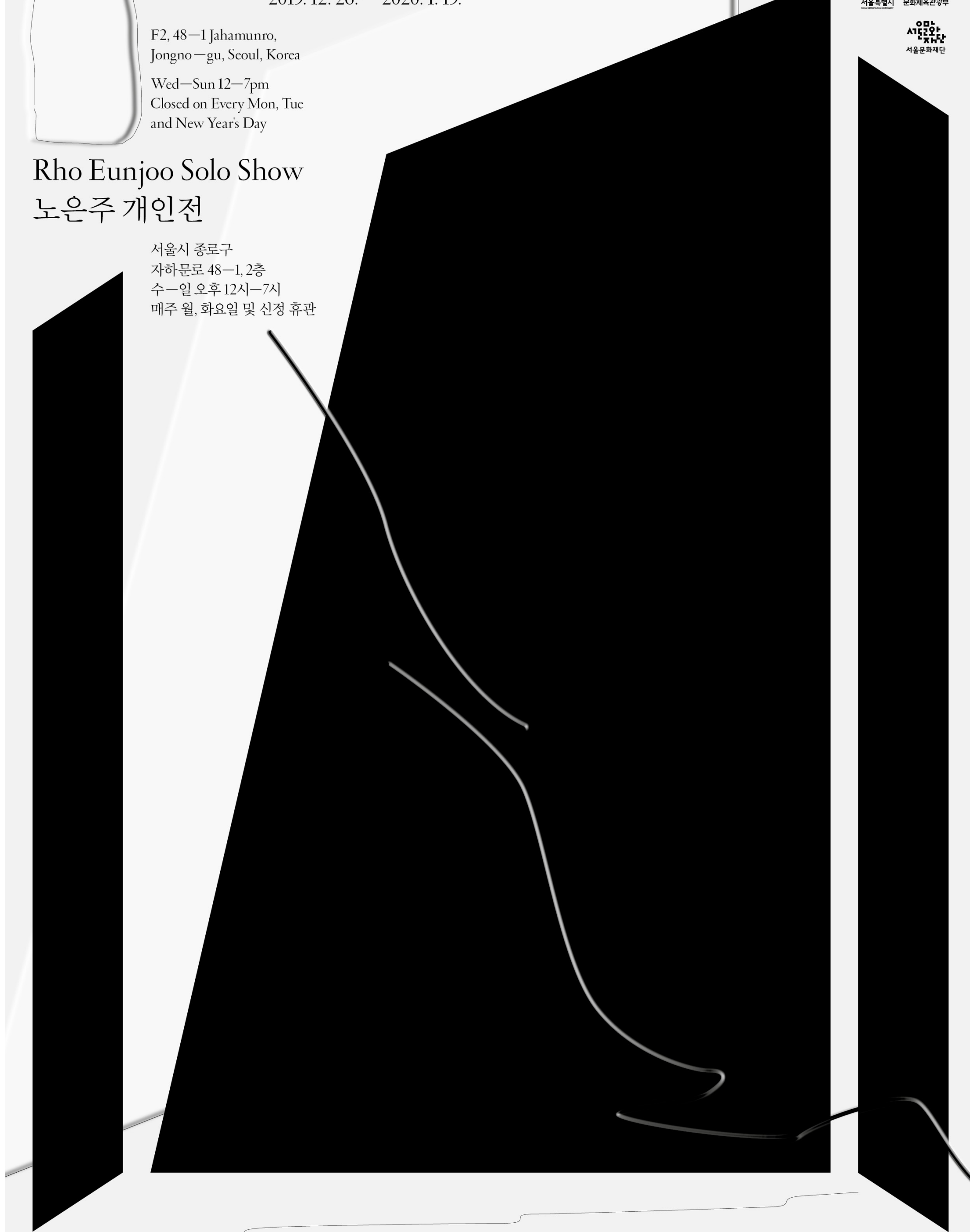


PREVIEW

노은주 <Walking-Aside>
Rho Eunjoo, Walking-As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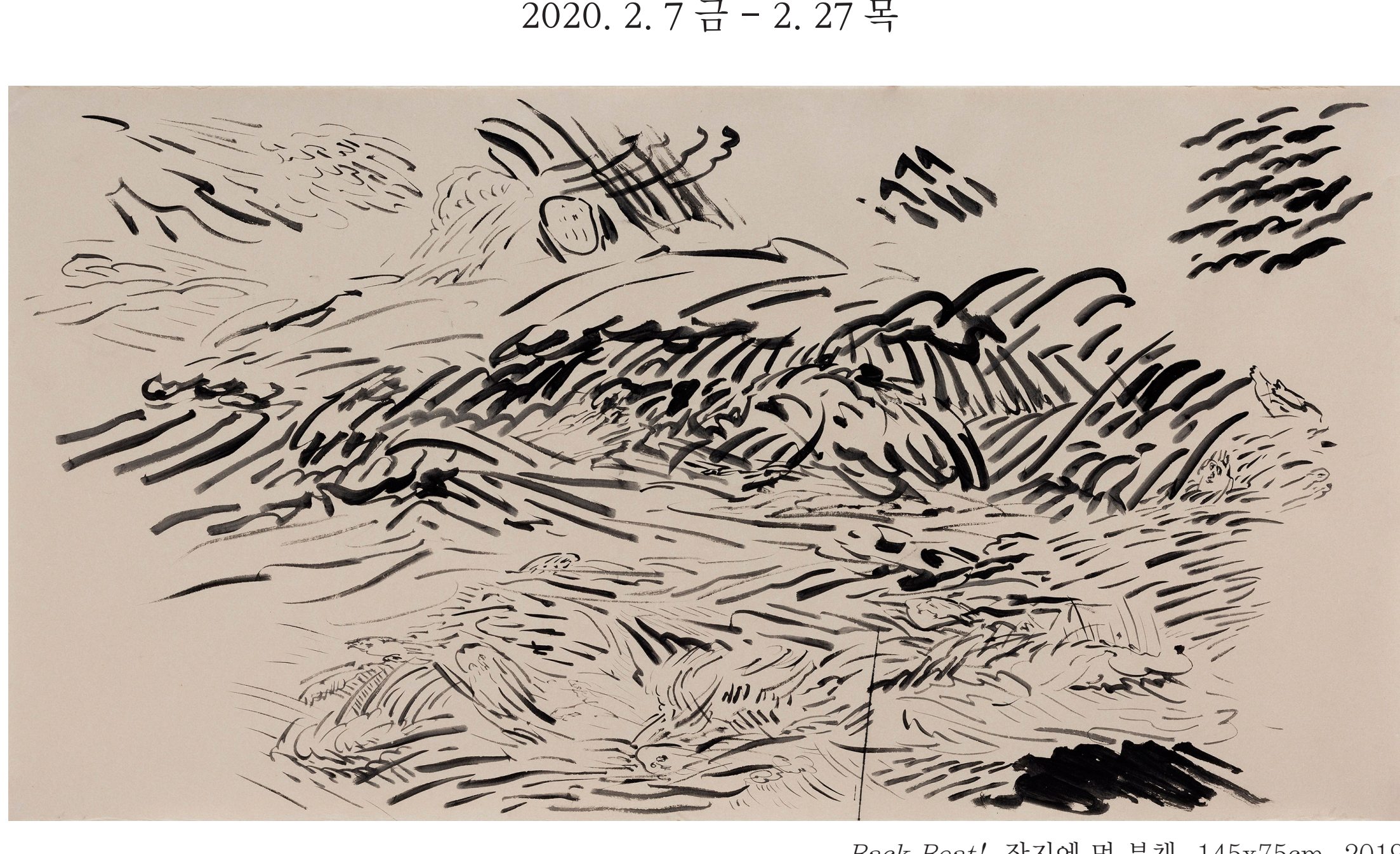
2019. 12. 26 목 - 2020. 1. 19 일
아티스트 토크 : 2020. 1. 19 일 오후 1시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는 오는 12월 26일부터 2020년 1월 19일까지 노은주 작가의 개인전 <Walking-Aside>가 열립니다. 노은주 작가는 <The Grey Side> 연작(2019), <Shadow Piece> 연작(2018), <도시정물> 연작(2015-2018) 등을 발표하며 도시에서 목격하는 자연물과 인공물의 형태(shape)를 탐구, 재형상화(refiguration)한 회화를 지속적으로 선보여왔습니다. 이번 전시는 캔버스를 환영의 창이자 얇은 깊이를 가진 공간으로 상징하고 다면적인 3면화, 4면화 등의 형식을 활용한 신작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연작이면서 동시에 개별작업이 되고, 풍경화면서 동시에 정물화가 되는 '상황'을 표지하는 회화를 통해 전시는 캔버스 너머 무대를 바라보는 듯한 연극적 공간 연출을 시도하여 관람객에게 색다른 시각 경험을 제시합니다.

권혜성 <Back Beat !>
Kwon HyeSeong, Back Beat !

2020. 2. 7 금 - 2. 27 목



Back Beat!, 장지에 먹,분채, 145x75cm, 2019

2020년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진행되는 권혜성 작가의 개인전 <Back Beat !>에서는 자연으로부터의 감각경험을 지면으로 옮기는 행위를 수행한 검은 드로잉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작가는 공기의 흐름과 함께 체험하는 몸의 감각을 어떻게 그림으로 구현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들이 겹쳐지고 서로 부딪히는 화면속 움직임은 한가지 색으로부터 변화하는 움직임, 밀도 등으로 치환되며 다채로우면서도 미묘한 변화들이 보여지는 화면을 선보입니다. 작가는 전시제목 <Back beat !>을 Fishmans의 97년도 앨범 Uchu Nippon Setagaya 중 'Back beat ni nokkatte /バックビートにのっかって /백비트에 올라서서'로부터 레퍼런스로 삼았습니다. Backbeat는 보통 음악 용어로 쓰이지만, 작가는 Fishmans의 음악에서 느꼈던 리듬감을 이번 드로잉 연작 속 선으로 치환해보고자 하였습니다.

REVIEW with PHOTOS

고재욱 <고재욱의 클리셰 극장 : Yellow>
Jaewook Koh, Yellow

2019. 11. 27 수 - 12. 15 일



장성은 <정지는 아무도 보지 못한 거친 짐승이다>
Chang SungEun, In the still is a fierce creature no one sees

2019. 10. 31 목 - 11. 21 목



SHORT-CUT NEWS

윌링앤딜링 전시 참여 작가들의 행방

조혜진 작가는 d/p에서 개인전 <옆에서 본 모양 : 참조의 기술>을 가졌습니다.
2019. 11. 12 - 12. 14

이세준 작가는 2020년 14기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세준 작가는 한국예탁결제원 KSD 미술상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권혁 작가는 강동아트센터 개관전 <시작의 힘>에 참여했습니다.
2019. 11. 19 - 2020. 2. 18

고재욱 작가는 남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모던 로즈>에 참여했습니다.
2019. 10. 15 - 2020. 3. 1

고재욱 작가는 오래된 집 재개관전 <수장 : A Map of a Man's Life>에 참여했습니다.
2019. 11. 28 - 2020. 1. 10

전다빈 작가는 마사마사티널 개관전 <마사일구>에 참여했습니다.
2019. 12. 14 - 2019. 12. 19

호상근 작가는 2019 경기 시각예술 성과발표회 <생생화화 : 生生化化 > <흩어진 생각, 조합된 경험>에 참여했습니다.
2019. 12. 13 - 2020. 3. 1

호상근 작가는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HBK에서 진행되는 Braunschweig Projects 2019/2020에 참여합니다.

조현 작가는 De Museumfabriek에서 <The overkill festival>에 참여했습니다.
2019. 11. 22 - 2019. 11. 24

W&D-NEWS

김인선 디렉터는 한달이 넘게 감기를 옆에 끼는 등 겨울 유행아이템을 만끽중입니다.

그와중에 한행수 매니저는 사흘만에 감기를 극복, 역시 젊음이 좋다는 주변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김보영 협력기획자는 호주와 뉴질랜드 겨울 여행을 떠나 만인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최정윤 큐레이터는 신한갤러리 역삼에서 그룹전 <Painting Network>를 진행 중, 아들이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맹성규 디자이너는 SeMa BUNKER에서 그룹전<노이로제 리드미컬>에 참여와 결혼식 등 바쁘고 행복합니다.

